



형편이 나아지면...

자선 주일을 맞아 우리의 형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인으로서 형편이 좋은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형편이 나아지면’이라는 말 속에는 웬지 지친 삶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운동도 하고 싶다.

형편이 나아지면 봉사도 하면서 살고 싶다.

형편이 나아지면 성경 공부도 하고 싶다.

정말 하고 싶은 것들,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형편이 좀 나아지면...’이라는 말 속에 삶의 우선순위에서 자주 뒤로 밀려나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형편’이라는 것을 좀 더 좋게 하기 위해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참고 견디며 살아갑니다. 밤잠을 쫓게 가며 일에 매달리기도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윤이 있는 곳에 돈을 굴려 보려 애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람마다 기준과 정의가 많이 다릅니다. 어떤 아이는 시험에서 70점을 받고도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지만, 어떤 아이는 90점을 받고도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이처럼 70점으로도 형편이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90점으로도 형편이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형편’의 기준은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광야와 메마른 땅은 기뻐하여라. 사막은 즐거워하며 꽃을 피워라. 수선화처럼 활짝 피고 즐거워 뛰며 환성을 올려라” 하고 외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사막이 갑자기 형편이 좋아져서 옥토로 변해서가 아닙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는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해 들은 세례자 요한은 감옥 속에서도 참된 평화를 찾았을 것입니다.

대림 시기를 지내며 주님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정말 하고 싶은 것,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뒤로 미룰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을 맞아들이기에 우리도 누가 “형편이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묻는다면 “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림살이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걷게 하시는 주님 덕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채워집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려는 마음이 자선의 시작입니다.



최훈 타대오 신부 | 교구 사회복지국장

주일 진레

제 1 독 서	이사 35,1-6ㄴ,10
화 답 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 2 독 서	야고 5,7-10
복 음	마태 11,2-11

깨어 기다림은 사랑하고 있음이다

박재찬 안셀모 신부/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던 중 저는 초등학교 시절 운동회를 앞두고 부모님을 기다리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지으시며 사셨고, 장남을 공부시키기 위해 도시에 사시던 이모님 댁으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시골 촌놈이었던 저는 초등학교 때 도시로 전학을 왔고, 나름대로 도시 친구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합주부에 들어가 악기 연주도 하게 되었는데, 마침 운동회 때 근사한 합주부 복장을 하고 행렬을 하며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모님께 자랑스런 저의 모습을 보여드릴 마음으로 운동회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운동회 바로 전날 어머님께서 ‘도무지 시간이 되지 않아 운동회에 올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어린 마음에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는데, 부모님께서 오시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실망이 컸습니다. 그날 저녁 방문을 잠그고 홀로 책상에 엎드려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혼자서 쓸쓸하게 운동회에 참석하면서, 부모님과 함께하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제 처지가 참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운동회를 마치고 홀로 이모님 댁으로 터덜터덜 걸어오면서, “그래, 나는 혼자다. 나는 홀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울지 말자”라고 다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시절을 다시 되돌아보면 추수철이라 바쁜 때였을 뿐 아니라 뇌졸중으로 쓰러진 할머니를 모시고 시골에서 살아가시는 부모님 역시 아들에게 오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하신 상황이 이해되고, 부모님을 원망했던 제가 참 속이 좁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야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했던 마음이 점점 넓어져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게 되고, 오히려 부모님의 더 큰 사랑을 헤아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를 위한 하느님’에서 ‘하느님을 위한 나’로 변화되어 하느님의 더 큰 사랑을 닮아 가는 여정인 듯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 시기는 우리 신앙을 더 깊게 하여 ‘나 중심에서 하느님 중심으로’ 생각하며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다시 말해 내 뜻대로 다른 사람이나 심지어 하느님께서 행동하지 않으신다고 하여 원망하거나 불신하기보다는, 더 큰 마음, 더 큰 사랑을 하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대림절을 잘 보내는 길일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 곁에 오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정화하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오로께서 참된 믿음과 사랑을 강조하셨고, 사도 야고보 성인께서는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이 대림 시기 동안 믿음으로 더욱 주님과 가까워지고 사랑의 실천으로 이웃과 더 가까워져야 할 것입니다.

독일의 신비가 요한네스 타울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 번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천지 창조 이전 아버지께 의한 영원으로부터의 탄생, 두 번째는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탄생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탄생은 하느님의 모든 날, 바로 우리의 작고 여린 영혼 안에서의 탄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림 시기가 우리에게 작년과 같이 후회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태어나심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산모가 뱃속의 아기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 쏟듯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준비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종말, 즉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지금부터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분의 뜻을 충실히 따르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은 먼 훗날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주님의 오심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곁에 항상 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깨어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신 주님을 깨어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있을 때 사랑 자체이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길은 ‘그분처럼 사랑할 때’이며, ‘사랑하고 있음’ 그것은 바로 그분을 만나고 있음이요 그것은 ‘깨어 그분을 기다리고 있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 -예언서를 읽고-

제11회 교구 성경잔치에서 체험글 부문 최우수상을 받은 '칠암동본당 김옥희 마리안나 자매님'의 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 너와 함께 있으니 겁내지 마라. 내가 너의 힘을 복돋우고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이사 41,10)

두려웠고 겁이 났습니다. 제게 주어진 과제는 시어머님 헬레나와 다섯 살 이나시오, 15개월 된 아우구스티노의 생계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저쪽은 밝은 세상이었습니다. 붙잡으면 잡힐 것 같은데 그는 환자복이 아니라 생전에 입었던 옷을 입고 터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죽는 것이 어두움인 줄로만 알았는데 그가 가는 길은 밝은 빛이었습니다.

“계시와 환시”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와 나의 이별을 위한 근사한 단어를 찾지 못하고 병풍으로 분리된 그의 시신 앞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촛불 심지에서 장미 봉오리가 피어나고 눈이 내리는 장면과 그가 문힐 문산성당 묘지가 눈앞에 보였습니다. 내일은 눈이 올 거라고 하면서 울지 않는 나를 보고 사람들은 집게손가락으로 머리를 가리키며 동그라미를 두어 번 그렸다고 합니다.

1991년 1월 6일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다음날 장례미사 중에 다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늘거리는 하얀 옷을 입은 두 여인의 호위를 받으며 그는 신혼여행 때 입은 코트를 입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나지막한 바위 같은 곳에 앉아서 나를 아쉽게 바라보았습니다.

“잘 가세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무슨 배짱이었는데! 문산으로 접어들던 그 순간부터 눈이 한 송이씩 흘날리기 시작하더니 하관을 하니 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를 보낸 아이들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울고 몸이 아팠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는 진리보다 역치 ‘고통은 고통을 낳는다.’를 실천하고 있을 때 도미니코(권용희) 신부님께서 “모든 은총은 고통의 보자기에 싸여 있다. 보자기를 푸는 수고를 거쳐야 은총을 만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못 알아들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같이 ‘몰라요. 안 해요. 싫어요’ 뻔뻔한 3단요 태도를 보이며 봉헌 대열에서 속으로 외쳤습니다.

“신자로서 체통은 지키게 해 주셔야죠! 사랑이시라면서요!”

내가 마음으로 기대고 의지하면 신부님도 수녀님도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고 심지어 성당까지 불태워 버리셨습니다! 지금은 오죽하면 그러셨을까? 생각하지만 그 당시 하느님은 가혹하셨습니다.

더 이상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시간에 아이를 업고 남강으로 갔습니다. 어설프게 시도하다 살아나면 부끄러울 것 같아서 물살이 센 곳을 찾으며 발을 내딛고 있는데 바로 앞에 남편 요셉 장례를 치른 요셉(이병돌) 신부님이 서 계셨습니다. 서울에 계셔야 할 신부님이, 하필이면 그 시간에 거기서 계셨던 걸까요!

“예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이사 44,18-19)

사랑이 끝난 자리에는 새로운 사랑이 시작됩니다.

옛그제는 풍선덩굴 씨앗에 ♡표시가 있어서 하느님 사랑을 읽었습니다.

사랑 결핍 보균자였지만 확신 판정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결핍증상을 보일 여가가 없도록 바쁘게 내 작은 사랑을 나누어야 했고, 내가 나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질서와 새 정의인 미래 하느님의 극진한 사랑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자신, 흔들리지 않을 굳건한 나의 믿음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말랑말랑해진 모습으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이끄신 그 사랑을, 그 극진한 사랑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그 크신 사랑을 믿으며 그분의 뜻을 찾아 읽으며 “자, 주님의 빛 속에 걸어가자.”(이사 2,5)

감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힘

경건하게 전례에 맞들이기를 만들어가는 거창성당

황광지 가타리나



무심히 성전 문을 열었을 때 빼곡하게 앉은 신자들의 모습이 놀랍다. 평일 낮미사인데, 수가 많고 무척이나 조용하다. 미사 시작 전의 성전 분위기가 숙연하다. 대형십자가가 측면 벽에 있는 독특한 구조의 성전에는 스테인드글라스에서 비치는 곳곳의 신묘한 빛깔이 전례를 경건하게 한다. 주례 사제의 진중한 표정은 좌중의 흐트러짐을 가다듬게 만든다.

경건하게 전례에 맞들이기

이진수 스테파노 주임 신부, 김태섭 마태오 사목회장, 최민희 아네스 부회장과 본당 이야기를 나누었다. 방금 레지오 단원 한 명의 선서식을 하고 온 이진수 신부는 미사 때와는 달리 엄숙함을 걷어내고 환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레지오 단원 한 사람 찾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냐고 좋아한다. 본당 신자들이 말씀 안에서 업그레이드되기를 소망하며, 경건하게 전례에 맞들이기를 목표로 하여 성전에서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함을 당부한다.

김태섭 회장은 얼마 전에 책임을 맡았다. 직장일로 25년 전 이곳으로 전입해서는 발만 담그고 바라보기만 하려 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 성가대, 꾸르실료, ME에다 사목회에서 기획과 전례분과에서 일하다 드디어 회장이 되었다. 82년 역사의 한 부분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역사를 쌓아온 선배들의 공로를 잘 지켜보려고 한다. 신자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고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보려고 한다. 최민희 부회장은 30여 년 전 고향을 떠나와, 아기를 업고 스스로 거창성당을 찾아와 세례를 받았다. 주위 선배들의 보살핌이 자신의 열정을 키우게 했단다. ME 활동하며 부부가 함께 본당 일

꾼이 되었다. 남편은 이미 사목회장을 역임했고, 자신은 구역분과와 제대회 등을 거쳐 부회장에 이르렀다. 막중한 임무이지만, 중간세대로서 막중한 선배형님들의 도움을 얻고 아우들의 뜻을 살피며 세세한 역할을 하려고 한다.

옥tober 페스티벌

최근에 성당 뜰에 파고라를 설치하고, 그 주위에서 모처럼 신자들의 결속을 다지는 잔치를 벌였다. 일명 '옥tober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낭만의 시간을 가졌다. 빨랑카를 받아 무료로 제공한 생맥주와 치킨이 가을 분위기를 돋우는 틈새에, '아나바다'장을 펼치고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사제와 새로 맡은 사목위원들은 이 첫 미션에 온 신자들이 마음을 열어 하나 되기를 소망했다. 많은 신자들이 신바람을 내며 마음을 나누고 주머니를 열었다. '아나바다' 수익금은 전액 교구청 건립기금으로 보내는 뿌듯함이 신자들의 가슴속에 다시 나눠졌다.

알고 보면, 거창성당 신자들의 저력은 알아줘야 한다고 누군가 말한다. 지난해에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맞아 9월에 라오브라 성극단을 창단했다. 그리고 12월 13일 <아,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거창문화원 무대에



사목위원

두 차례 올렸다. 이종일 마태오가 연출하였고, 본당 신자들이 배우로 출연하여 열연하거나 스텝으로 참여하여 땀을 흘렸다. 지금도 성당 구석에 걸린 포스트를 보면 그날의 감동이 되살아난다고 한다. 그들은 이 연극으로 김대건 신부님의 생애와 영성을 남보다 더 알고 새기며 뜻깊은 해를 보냈다. 본당소식지 <한들>이나 본당 홈페이지도 매우 눈에 띈다. 사제의 간섭이나 지시가 아니라도 찾아서 소식을 올리고 활용하는 각자의 역할이 확연히 보인다. 이 매체들을 통해서 교구와 연대하는 노력도 볼 수 있다.

본당나이 82에 걸맞은 신앙나이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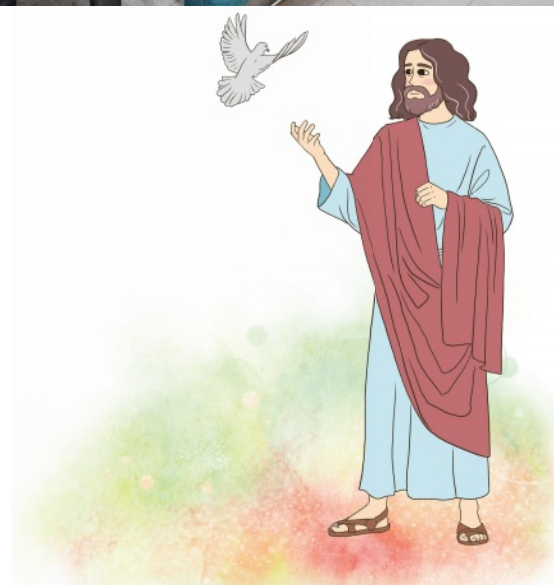
거창성당은 1940년 6월 29일 '성모성심'을 본당주보로 하여 설립되었다. 60년이 지날 즈음에는 성전신축에 온 공동체가 일심동체가 되었다. 착공으로 시작하여 완공하고 봉헌하기까지, 스테인드글라스로 성전을 완성하기에 이르기까지 본당 신부가 몇 번 바뀌는 긴 과정을 겪으며 오로지 거룩한 주님의 집을 원했다. 그때 그 피땀 눈물이 거름되어 '거창'이란 이름처럼 성장했다. 70년이 되었을 때는 『은총의 70돌』을 발간했다. 『거창성당50년사』에 이은 본당사 제2권이다. 이미 발간된 50년 역사가 있으니 그 후 20년의 역사에 집중하여 엮었다. 그와 더불어 “깨어나 기도하여라”는 표어를 앞세워 은총에 감사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했다.

이렇게 흘러 올해 82년이 되었다. 이진수 주임 신부는 본당 나이만큼 신앙나이는 따라가지 못한다고 조심스레 말한다. 거창은 대도시 대구와 인접하여 시골이지만 잠재력이 큰 곳이다. 물론 노령층이 많은 건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젊은 사람들의 유입이 만만치 않아 활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비록 신자들의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해도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양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가늠하고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진수 스테파노 신부의 안내를 받으며 성심대학이 열리고 있는 지하로 내려갔다. 성심대학은 시니어 교육과정이다. 4,50명의 시니어들이 노래강의에 집중하고 있다. 노래는 다가올 성탄축제 때 부를 곡목이란다. 노래강사는 사목위원 총무인 고승환 하비에르이다. 성심대학이 끝나고 말랑말랑한 떡국 한 그릇씩 받아들었다. 찬 공기를 거두게 하는 뜨끈한 국물이 모두들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한다. 성모회 회장과 회원들이 주방을 들락거리며 시중들기에 여념이 없다. 성심대학은 코로나로 중단되었다가 9월부터 다시 문을 열었다. 주도해서 지원하는 분이 있으면 외부 식당에서 점심을 나누기도 하고, 신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점심식사를 만들어 나누기도 한다. 전례와 말씀에 맞들이면서, 육신의 양식에도 맞들이는 공동체의 시간이다.



성심대학



교구장 서리 동정

교구 성경사목부 30주년 기념미사

일시: 12월 17일(토) 11:00

장소: 상남동성당

교구/본당

광주가톨릭대학교 연구과 1학년 겨울방학

일시: 12월 12일(월)

광주가톨릭대학교 학부 1학년 겨울방학

일시: 12월 17일(토)

재무평의회

일시: 12월 13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성지 및 사적지 정비위원회

일시: 12월 13일(화) 11:00/ 장소: 교구청

교구청 직원 직장인 법정무교육 및 연수

일시: 12월 16일(금)/ 장소: 교구청

12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12월 18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교구 성경사목부 30주년 기념미사

일시: 12월 17일(토) 11:00/ 장소: 상남동성당

교구 성경사목부 성경 교육봉사자 모집

지역: 마산, 창원, 진주, 거제, 통영

대상: 말씀 봉사가 가능하신 분

신청: 12월 24일(토)까지(면담 후 봉사자 활동)

문의: 성경사목부 055·249·7026, 010·3567·4810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체나폴로 다락방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19일(월) 13:00~15:00

장소: 교구청 1층 대강당

준비물: 메시지 책, 미사 준비

문의: 회장 010·9399·5454

기타

2023 살레시오 겨울 성소 피정

일시: 23년 1월 6일(금)~8일(주일) 2박 3일

장소: 살레시오회관구관(서울)/ 참가비: 3만 원

대상: 고3(예정자)~30대 미혼남성

문의: 010·2042·8353(삼재현 신부)

일본 가고시마교구 주관 성지순례

일정: 매월 1회

장소: 도쿄, 북해도, 아키타, 나가사키

지도: 송진욱 신부/ 비용: 99만 원부터

문의: 010·3645·9028

가톨릭꽃동네대학교 2023학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취업률 76.5% 중복권 최고수준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등록금 전액 감면

·간호학과 등록금 100만 원 감면

·신입생 기숙사 100% 입사 가능

모집: 간호학과, 사회복지·상담심리학부

원서접수: 12월 29일(목)~23년 1월 2일(월)

문의: 043·270·0100~0102

2023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정시모집

원서접수: 12월 29일(목)~23년 1월 2일(월)

모집: 간호학과 외 14개 학과

문의: 입학처 051·510·0702~8, 0804~9

예수회센터 겨울특강·동영상 강의(1월 개강, 각 6주 과정)

내용: ·신약성경과 영성생활-치유에 대한 오해와

성서학적 진실

·구약성경 아카데미-신명기 강독

·의식(양심)성찰, 어떻게 할 것인가?

·칼 융의 심리유형론과 MBTI-영성적 접근

·욕망! 심리적 돌봄과 영적 성장의 문(門)

·가톨릭 사회교리의 원리와 핵심 이슈들

·육화의 영성-일상을 살아가는 영성과

겸손

문의: 02·3276·7733, <http://center.jesuits.kr>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수강생 모집

내용: 홈도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053·593·1273

바오로딸 성경학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uus.pauline.or.kr/> 23년 1월 31일(화) 마감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토) 16:00~23년 1월 1일(주일)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이청준 신부),

송년파티,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청: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 010·7542·9631

교구청 직원 모집

교구청 새 청사에서 함께 일할 가사도우미를 모집합니다.

모집: 0명

접수: 12월 21일(수)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자필 이력서, 본당 신부 추천서,

교적사본, 보유 자격증 사본

특이사항: 신체 건강한 분,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

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17,19

▶면접일자 개별 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강윤철 요한 보스코 신부

가톨릭평화방송 TV

'마음을 채우는 가톨릭콘서트' 심

출연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일곱 가지 주제 묵상 글

▶방송 시간: 12월 16일(금) 15:00/

12월 18일(주일) 15:00/ 12월 22일(목) 20:00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2022 겨울 단기모금

유난히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올해

산타의 선물을 기다리는 홀몸 어르신,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외로운 이웃에게 가슴 따뜻한 이웃이

되어주세요.

12월 25일을 의미 있게 2,500원을 계좌로 보내주세요.

단기모금기간: 12월 11일(주일)까지

후원계좌: 농협 301-0083-8432-91 성산복지관

▶이체 후 복지관으로 연락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문의: 창원성산종합사회복지관 055·282·3737

호계본당 제1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협의회장: 조훈(토마스)

사목협의회부회장(남성): 김성진(바오로)

사목협의회부회장(여성): 안광숙(안젤라)

총무: 윤재환(바오로)

기획분과위원장: 김순철(마티아)

전례분과위원장: 김승임(글라라)

시설분과위원장: 강상수(야고보)

복음화분과위원장: 김영옥(세레나)

사회복지분과위원장: 정연보(마리안나)

청소년분과위원장: 원경숙(레지나)

교육분과위원장: 서광숙(레지나)

홍보분과위원장: 노민현(프란치스코)

구역분과위원장: 이정자(그라시아)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12일(월) 19:00	중앙동성당	위기의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강진기 안드레아 신부(대구대교구)		010·5072·5612
청년	매주 (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2월 17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 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이 있는 젊은이

■국내·해외성지순례 모집 2023년 1월 11일 이스라엘 9일 성지순례 ■제주도·한국성지 167 성지순례 모집 주중·주말 매주 출발 미카엘여행사 010.8650.9690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가톨릭 우리농 직매장 유기농산물·유기농식품 전문점 창원시 중동중앙로 47 어반브리스 상가 1층 055·266·7010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0-3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신세계 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 비뇨기질환 · 수술 / 전립선암 검진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층 (자유시장 사거리)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동우 건축 인테리어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및 화장실 시공 정직한 시공 / 가성비 뛰어난 시공 비용 일단 부담 없이 견적을 받아 보십시오 강동주 (세례자 요한) 010.5053.539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로테스크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요때 죽으면 켈 좋아요

김정권 시몬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저물어 가는 계절이 아쉬워 가을 얇이를 하는가 싶었더니 어느새 겨울이 깊어간다. 1년 중 가장 어둡고 긴 밤인 동지를 불과 열흘 남짓 남겨 두었으니 올해도 거의 막바지다. 지난날 한때는 이때쯤이면 혼기 짝 찬 처녀, 총각들이 해 넘기지 않으려고 결혼러시를 이룬 때도 있었지. 라디오에서는 캐럴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고 상가 들은 크리스마스트리로 화려하게 장식하였었다. 애꿎은 우체부는 밀려드는 성탄 카드와 연하장 배달로 몸살을 앓았을 터이고 그리스도교가 국교도 아닌 우리나라에서 연말이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며 통금이 일시 해제되고 분위기 한껏 고조되었었다. 그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닌데 언제부터인가 카드와 연하장이 사라지고 전자메일로 대체 되는가 싶더니 요즈음은 그것마저도 뜸하니 추억하나가 송두리째 사라진 것 같아 아쉽다.

'유 퀴즈 온 더 블록'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볼 때다. 진행자는 춘천의 박사마을을 방문하러 가다 우연히 길에서 만난 79세 동갑내기 노부부를 선정하여 퀴즈를 내면서 대화를 나눈다. 자칭 술 박사라고 자기소개를 한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보이며 말씀도 잘하였는데 연신 술 잘 먹는다 자랑을 힘주어 강조하며 뽐내었다. 이에 진행자 유재석은 "100세 시대인데 술 좀 끊고 건강하게 사셔야지요."라고 하였더니 할아버지가 "뭘, 이만큼 잘 살았으면 됐지."라고 말하였다. 그때 느닷없이 할머니가 "맞아요! 요때 죽으면 켈 좋아요."라고 말을 하는 통에 그만 빵 터져서 갑자기 웃음바다가 되었다.

세상에 죽기 좋은 때가 있으려나. 누구든지 오래도록 머물고 싶음이 본능 아니겠는가. 왕이나 재벌로 산들 "할 만큼 했고 살 만큼 살았으니 이제 떠나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가? 神과 반가운 조우를 간절히 기다리던 순교자들과 같은 신심이 아닌 다음에야 세상 그 누가 어찌 죽음이 두렵지 않으며 삶이 당당하고 자신 있겠는가?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렇듯이 언제까지나 연습 없는 낯선 인생길을 가야 하기에 좌충 우돌하면서 세월이 흐를수록 그 뼈저덕거림은 더 심해지며 후회만 쌓으며 살아간다. 그러기에 비단 계절은 겨울이 아니라도 내 마음은 늘 세모의 길목에서 있는 듯 아쉬움 한가득하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괜찮지 않음에도 괜찮다고 하며 힘을 주는 하느님이 계시고 힘이 없음에도 힘내라 하며 등 떠밀어 주는 성모님이 함께하시기에 견디고 버티며 살아간다. 때로는 내 인생에 만약 하느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나는 어찌 살았을까 하는 아찔함에 두려움이 들기도 한다.

로버트 프로스트가 말했듯이 내게도 지켜야 할 약속이 있고 깨어 있는 동안 더 가야 할 길이 있다. 언젠가 그때 세상 떠나기 전 제대로 하지도 못하였겠지만 늦었더라도 "정말 내 마지막 수삼 년 어느 때에는 나름대로 후회 없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였었다."라는 이 말 한 번 할 수 있으려는지 주님 탄생을 고대하며 대림 제3주일에 다짐해 본다.

교구 마산ME 40주년 가족모임



교구 ME협의회는 11월 5일 창원문성대학교 체육관에서 마산ME 40주년 가족모임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교구 ME 사제 15명, ME 체험 부부 250여 명, 각 교구 축하 외빈 등 많은 부부가 참석하여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나처럼 하여라'는 슬로건 아래 한 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부부는 작은 교회라는 믿음으로 부부간의 일치와 친밀을 위해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한 많은 부부들이 마산ME 재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교구 평협 후반기연수



교구 평협(담당: 최봉원 야고보 신부, 회장: 최종록 대건 안드레아)은 11월 26일 교구청에서 후반기 연수를 실시하였다. 최종록 회장은 이번 연수를 통하여 교구 평협, 각 지구, 각 본당 및 제 단체가 '소통 플랫폼을 통한 조직 간의 소통 체계 확립을 위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하였다. 연수에는 각 본당 회장 48명, 교구 산하 단체장 11명, 평협 위원 8명, 총 67명이 참석하였다.



여호수아기의 결말(여호수아기 22-24장)

김영선 루시아 수녀 / 광주가톨릭대학교

지난 순례에서 살펴본 대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분배하는 일은 여호수아기 21장에서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기 21장은 이런 말로 끝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집안에 하신 그 모든 좋은 말씀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21,45) 여호수아기의 나머지 장들은 여호수아기의 후문에 해당되며, 여호수아가 이끌었던 한 시대를 결말짓는 내용들이 언급됩니다. 먼저 여호수아기 22장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한 과업에 참여하였던 요르단 동편의 세 지파가 본래의 상속 재산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동편 지파들을 돌려보내면서 하느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길을 따라 걸으라고 당부합니다(여호 22,5 참조). 그들은 많은 전리품들을 나누어 받고 돌아가는 길에 요르단 강가의 글릴롯에 커다란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일은 하느님께서 정하신 한 곳에서만 제사를 바쳐야 한다는 신명기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행위처럼 보입니다(신명 12,13-14 참조). 서편 지파들은 동편 지파들의 이 행위를 하느님을 거역하는 배신행위로 보았고, 이들의 행위가 아칸의 범죄처럼 온 민족에게 하느님의 진노를 내리게 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서편 지파들은 상황을 정확히 알아보기 위하여 10명의 수장들과 엘아자르 사제의 아들 피느하스를 그들에게 파견하였습니다. 요르단 동편 지파는 그들이 쌓은 제단은 제사를 바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들 역시 주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세운, 주님의 제단의 모형일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사실 그들은 훗날 서편 지파가 동편 지파를 하느님과 무관한 지파로 차별하게 될 것을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습니다. 판관 12,1-6에 소개된 에프라임 지파와 길앗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이런 차별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피느하스와 10명의 수장들은 동편 지파의 설명을 듣고, 그들이 주님을 배신한 것이 아니며,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보고를 들은 서편 지파들도 모두 만족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칫 전쟁으로 발전될 수 있었던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여호수아기 23장은 연로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원로들과 우두머리들, 판관들과 관리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신명기 신학이 아주 풍부하게 나타나는 유언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한 사람이 천 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하느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쫓아간다면, 그들은 결국 이 땅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호수아기 24장은 스켄의 장엄한 계약식에 대해 전해줍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을 스켄에 모이게 합니다. 그는 성조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집트를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오게 되기까지의 역사를 회고한 후, 그들에게 야훼와 이방인의 신들 가운데 누구를 섬길 것인지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였고, 백성들은 그때마다 야훼를 섬길 것을 맹세하였습니다. 이날 여호수아는 스켄에서 백성과 계약을 맺고, 스켄 성소의 향연나무 밑에 증거가 될 돌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을 끝낸 여호수아는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팀낫 세라에 매장되었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지고 올라온 요셉의 유골은 스켄에 묻혔습니다. 아론의 아들 엘아자르도 죽었습니다. 이들의 죽음과 매장에 대한 보도는 한 시대가 종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이번 순례지는 서편 지파와 동편 지파가 갈등을 겪었던 글릴롯,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을 남긴 곳, 그리고 스켄, 이렇게 세 곳입니다. 어디든 여장을 풀고 가만히 머물러 보십시오.